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나는 필리핀 바탄반도주립대학의 단기어학연수를 갔으며 이곳의 정식명칭은 "Times SLC" 이다. 대학이라기 보단 대학에서 하는 어학원사업의 형태였으며 실제로 선생님 및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영어를 배우기에 효율적이며 내가 원하는 수업을 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수업	수업은 1대1수업과 그룹수업으로 나뉘었다. 1대1수업은 하루에 4시간으로 각자 다른 강사진들로 이루어졌으며 4시간 중에서도 VOCA담당 선생님이 2시간, Reading담당 선생님 2시간으로 이루어졌었다. 나는 VOCA 담당 선생님이 T. Jessa, T. jedi 였으며 Reading선생님은 T. Alex, T. Angel이었다. 그룹수업은 한 그룹당 5명정도였으며 수업은 각각 MMC 1시간, face to face 1시간, 토익스피킹 2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나의 MMC담당 선생님은 T. Runi 였고 face to face선생님은 T. Lia, 토익스피킹 선생님은 T. Braian 이었다.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의 영어실력증진의 힘썼으며 영어가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Activity	단기 어학연수중 Activity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며 수빅투어, 클락투어, 요트투어, 리조트투어로 이루어졌다. 수빅투어는 선생님들과 같이 수빅을 관광하는 활동이었고, 클락투어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쇼핑몰에만 있다가 왔다. 요트투어와 리조트투어는 환상적이었다. 요트타고 드넓은 바다로 나가 다이빙 및 수영을 했고 리조트에서 고급스러운 요리(맛은 없음)를 먹고 바나나보트, 스쿠버다이빙 등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았다.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만 나뉘며 내가 갔을 때는 건기여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날씨를 누리고 왔다.
안전	수빅은 시민증이 있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간 살인사건없는 도시로 유명하다. 그러나 도심지역이 아닌 시장거리, 뒷골목은 조금의 인종 차별 언어의 사용이 존재한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우리는 모두 기숙사생활을 했으며 남녀가 구별된 구역에서 생활을 하였다. 통금시간은 10시이며 다음날 수업이 없으면 12시까지도 가능했다. 또한 저녁이 되면 귀여운 도마뱀을 구경할 수 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외부식당(v) 기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준다. 초반에는 아침,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저녁을 밖에서 먹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을 먹지 않으며 자금부족으로 저녁을 학교식당에서 먹는 인원이 늘어났다.
교통	대중적인 교통은 크게 택시와 FB가 있다. FB는 봉고차(?)에 14명정도가 탑승하며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은 1인당 14페소이다. 택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사기를 많이 친다.(150페소인데 자꾸 300페소달라고...)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출국세	13,000	귀국할 때 납부
식비, 유흥비, 기념품	387,000	부족했다.
합계	400,000	40만원이 최소 경비이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내가 만약 출국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선생님들에게 줄 한국 기념품을 미리 사서 준비해 갔을 것이다.

그 외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나는 이번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영어실력도 늘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선생님들이었다. T. Jessa, T. jedi, T. Alex, T. Angel, T. Runi, T. Lia 그리고 T. Braian... 선생님들이 가깝게 다가오며 누구보다 친하고 성심성의껏 수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SLC매니저분들이었다. 특히 매니저 Alex(운뢰)형은 내가 중국 영사관 행정직에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밤을 새며 같이 면접을 준비해주었다(비록 떨어졌지만...). 이후에도 학생들의 생활, 수업등의 관련하여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세 번째로 좋았던 것은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만난 순천향대 학생들이다. 나는 학과에서 혼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많은 친구들과 친해져 있었고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여러 인연들을 만들어준 필리핀 바탄반도주립대학의 단기어학연수에 감사하며 이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